

Name: 유민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을 개발·공급하는 미스터마인드가 하나 벤처스 그룹
동해 15 억원 규모의 '프리A' 투자를 유치 했는데 14일 박희덕 키러마인드는 돌봄
로봇을 통해 이용돼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지병을 평가, 정신건강 ~~관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다. 미스터마인드는 2017년 설립 후 인포뱅크,
벤처스퀘어에게 이츠와 후속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창업투자 전문 프랜차이즈(TIPS)에
선정된 기업이다. 아바타틱 아키텍처 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고 자연어처리(NLP)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2019년 서울 마포구립을 시작으로 30여곳 지자체에
돌봄 로봇을 공급했다. 최근에는 충청북도청 울산광역시 등에 로봇을 제공했다. 서울
동대문구청 캐릭터로 제작된 '곰돌이'와 경상북도 의성군의 '지우' 로봇 등이 모두
미스터마인드가 제작한 돌봄로봇이다. 이 로봇은 어르신의 대화, 자발적 행동(ECSMC,
GDS)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르신의 정신 건강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치매와 우울증, 개살, 고독사 등의 예방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또 이 로봇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모르는 역할도 한다. 농로 등하
기능을 탑재해 하루에 10~20회 정도 어르신에게 꾸준히 알을 건다. 약속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르신과 인리능력 향상을 위한 퀴즈대결도 한다. 김동원 미스터마인드
대표는 <AI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인공적으로 만든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실제 이사를 시작했다"며 "사람의 일을 대체할 AI 비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 지능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AI와 예술품을
접목한 온라인 공연은 새로웠지만 아쉬웠다고 한다. 예술 체험시 오히려 인성화제
발생했고, 결과물의 품질은 나쁜 것 같아 비평가들이 뛰어들지 않았다. 커뮤니케이션
마음은 단순한 질 수준에 저대로 답하지 못했다. 자백 기능이 없어 공감능력만 등
등 기억력처럼 되는 사람에게서는 부족하다.